

WATER 2012 KOREA



겨우내 얼었던 얼음을 깨고 몽글몽글 솟는 웅달샘을 발견한 사람들처럼 기대에 부풀 표정의 상하수도인들이 경기도 고양시로 모여 들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국내 최고의 상하수도인의 축제, 물산업 정보 교류의 무대인 2012 WATER KOREA가 지난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킨텍스^{KINTEX}에서 열렸다.

우리 협회가 주최하고,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가 후원한 이번 전시회는 160개 기관과 기업이 540개 부스를 마련해 참여하고, 2만 5천여 명이 참관하는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물산업 행사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특히 해외 5개국 9개 기업이 38개 부스 규모로 참여한 것을 비롯해, 국제 물산업 컨퍼런스를 위시한 각종 회의와 학술 발표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제 전시회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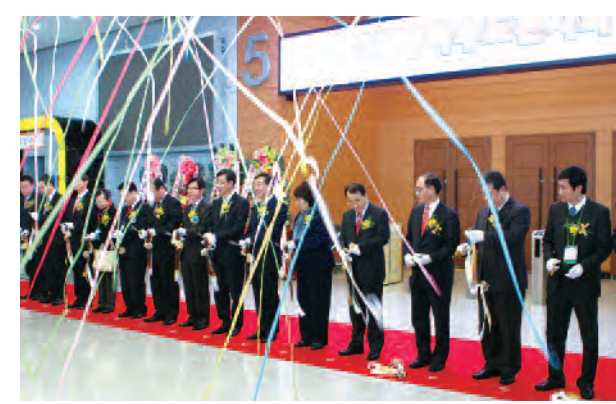
지난해 11월에 열린 2011 WATER KOREA가 끝난 지 4개월여 만에 개최된 행사라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지만, 지난 10년간의 노하우와 협회 임직원 및 유관 단체 구성원들이 마음을 모아 성공적인 결과를 일궈냈다. 이런 결과는 전시회 첫날 열린 개막식의 뜨거운 열기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개막식 - 물산업 지속 성장의 중요성 강조

전시회 첫날 열린 지난 3월 19일 오전, 박원순 협회장서울시장, 윤종수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서 테워구스타나 토빙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공사, 라몬 알리칼라 필리핀 중앙상하수도청 청장 등 200여 명의 국내외 인사가 함께한 개막식이 성황리에 거행됐다. 박원순 협회장은 환영사에서 시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는 물 복지의 중요성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물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윤종수 환경부 차관은 물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거듭 강조하며 그 중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물산업 육성과 해외 진출 활성화에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이 힘을 합쳐 국가 차원의 통합비전을 수립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개막식 순서로 김준근, 이순화 씨 등 2012년 올해의 '차랑스러운 상하수도인' 5명에 대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시상이었다.

행사장 전시 현황

2012 WATER KOREA는 킨텍스 제1관 5홀규모 10,611㎡에서 진행됐다. 계량계 측기류 42개 업체, 밸브·펌프류 23개 업체, 배관·맨홀·물탱크류 49개 업체, 수처리공법·기기·기술류 25개 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7개 특·광역시와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등 기관별 4개 홍보관이 운영됐다. 세심한 준비와 꼼꼼한 진행으로 국제 전시회로서 손색 없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전시회 관람을 마친 김한수서울시, 38씨는 "아직 해외 업체 참여가 많지 않아 아쉽지만 국내 물산업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행사예요. 물산업 동향과 전망을 같이 고민하고 신제품, 신기술도 확인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동종업계 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돼 매우 유익합니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행사로서는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국민 참여형 전시회로써의 변화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물산업을 위한 희망의 첫걸음

- 물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성장
- 국내 최대의 상하수도인들의 축제



상하수도 관련 사업 및 조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고 물산업 분야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다.

물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기관과 민간의 통합적인 전략 ①자본 확보 ②전문인력 양성, ③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세계 물산업 시장에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선결 조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국제 물산업 컨퍼런스

둘째 날인 20일 오후 2시부터는 국제 물산업의 흐름을 살피고 국내 물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물산업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부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 관계자 등 국내 인사를 비롯해, 물산업 해외 진출의 타깃으로 새롭게 부상한 동남아시아 4개국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의 상하수도 관계자 등 해외 인사 1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4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협회 최용철 상근부회장의 개회사로 컨퍼런스가 시작됐다. 고려대학교 최승일 교수의 사회로 첫 순서인 환경부의 '물산업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여기서는 물산업을 위한 해외 시장 진입 전략으로, ①글로벌 경쟁력이 필요한 3대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개발하고 ②수출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직하며 ③기업들의 운영 관리가 용이하도록 물산업과 관련된 상하수도 분야의 경영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뒤이어 해외 참석자들의 발표가 계속되어 컨퍼런스장의 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아울러 행사 둘째 날인 20일 <상하수도사업소장 회의>가 WATER KOREA 개최 이래 처음 열렸다. 각 도의 상하수도과장을 포함 일선 시군의 상하수도를 책임지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환경부 등 중앙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우수사례 및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협회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정책 공유와 일선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회의를 정례화하여 보다 많은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2012 WATER KOREA에서는 이 외에도, <2012년 한국상하수도협회 정기총회>, <상하수도인의 밤>, <먹는 물 수질개선 발표회>, <제11회 상수도연구 발표회>, <하수도 세미나>, <2012 공동 학술 발표회> 등 다양한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졌다. 한편 전시회 입구에서는 <유니세프 홍보관>이 운영됐다. 여기에서는 물 부족 지역 지구촌 어린이를 위한 식수 및 위생사업 소개, 모금활동 그리고 유니세프 물의 날 사진전과 홍보 동영상도 상영되었으며, 유니세프 긴급 구호 물품이 전시됐다.

“앞으로도 WATER KOREA가 질적·양적인 성장을 지속하여 향후에는 미국수도협회AWWA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ACE Annual Conference and Exposition를 넘어서는 명품 전시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개막식 축사를 통한 환경부 윤중수 차관의 이 말처럼 우리 협회의 WATER KOREA는 끊임없는 연구와 변화로 계속 진화·발전해야 할 것이다. 2012 WATER KOREA는 세계 물산업의 흐름을 살피고 향후 전망을 논의하는 장으로, 세계 물산업의 최전선에 자리 잡은 우리의 신기술을 접하는 국제 전시회로서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이에 윤 차관의 주문이 현실화되는 시점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흘간 진행된 국내 상하수도인들의 대축제는 2013년 3월 대구광역시 엑스코 EXCO에서 열릴 2013 WATER KOREA의 성공을 기원하며 마무리됐다. ☺

2012 WATER KOREA



참표 통통통! 아이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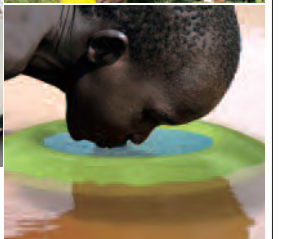
Play Pump 아이들이 회전 놀이 기구를 돌리면서 놀면, 여기서 에너지를 얻어 물을 끌어 올리는 펌프
designed by Water For People

물 부족 국가 아이들을 위한 아이디어

- LIFE STRAW
- PLAY PUMP
- Q DRUM
- HAPPY BASIN



Q Drum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물을 쉽고 재미있게 나눌 수 있게 고안한 물통
designed by Piet Hendrikse



Life Straw 오염된 물을 손쉽게 정수해서 마실 수 있게 고안한 빨대
designed by Vestergaard Frandsen

Happy Basin 아프리카에서 오염된 냇가의 물을 깨끗하게 정수해서 길어 올릴 수 있게 고안한 대야
designed by 김우식 & 최덕수



계곡물 마시는 뒷모습이 아름다워 마음에 개나리 폈네

“홍 대리, 적멸보궁(寂滅寶宮)이 뭘 줄 알아?” “적을 멀하고 궁을 지킨다는 뜻이겠지?” 여지없이 차 대리는 ‘작업성 멘트’를 날린다. 남자들은 뻔히 아는데 여자들은 그걸 모른다. 작업 걸고 있는 건데 말이지. 홍 대리는 우리 회사 홍보과에 근무하는 산악회 ‘여신’이다. 기확실 차 대리는 너무 아는 척을 해서 남자 직원들은 싫어라 하는데 사프하게 생긴 외모 덕에 여직원들 사이에선 인기다. ‘저 놈의 아는 척’하며 ‘씩소’를 날려 보지만, 홍 대리 뿐 아니라 차세대 여신 지영 씨까지 귀를 기울인다. “적멸은 열반이라는 뜻이지, 즉 열반의 보석을 모서 놓은 곳.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모신 곳이라는 뜻이지. 지금 오르는 오대산에 있는 상원사도 그 중 하나지.” ‘어라,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 거 참. 남자도 이렇게 빠져들면 여자들은 오죽하겠어.’ 모처럼 가을 산행이라 부푼 꿈, 홍 대리와 살짝 연애 라인이 형성되는 요즘이라 신경 좀 써보려고 하는데 중간에 차 대리가 치고 들어올 줄이야. 에라, 난 오대산 풍경이나 실컷 구경하려나. 우리 산악회는 이번 봄 산행으로 오대산 코스를 택했다. 신입 직원이 있어 진고개-동대산-두로봉-상왕봉-비로봉-적멸보궁-상원사로 이어지는 8시간 종주 코스 대신, 어제 월정사-전나무 숲길인 ‘천년의 숲길 트래킹’과 오늘 소금강-구룡폭포-만물상에 이르는 ‘소금강 트래킹’을 준비했다. 정말 오대산 봄 풍경은 여신을 향한 내 마음처럼

늘실늘실 피어 올랐다. 내 마음이라도 아는지 계곡을 따라 오르던 홍 대리가 차 대리를 앞으로 보내고 슬슬 내 곁으로 왔다. “과장님, 이거 보신 적 있어요?” 라이프 스트로(Life Straw)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이렇게 입에 대고 아무 물이건 쪽 빨아 마시면 저절로 정수가 되는 거래요.” 하면서 계곡물에 빨대를 대고 쪽 빨아 마셨다. “아, 인터넷에서 본 적 있어요. 나노 필터로 정수하는 거라죠?” “헤, 그것까진 모르겠고, 여기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봉사하는 Water for People(www.waterforpeople.or)라는 단체에서 얻은 거예요.” 보면 볼수록 신기했다. 속마음은 두근두근. 이게 바로 간접 키스가 아닌가. “이렇게 간단한 도구로 오염 없는 물을 아무데서나 마실 수 있다니. 지구촌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이디어로군요.” 온몸이 빠근하지만 내가 누군가. 천하무적 김 과장 아니던가. 집에 와서 씻자마자 바로 물 부족 아이디어를 검색했다. 홍 대리가 있는 환경 동호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순전히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 때문이다. ‘홍 대리, 기다려. 넌 내게 반할 거야. 틀림없이.’ ☺